

[그때 그 이야기]

연변은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우리의 '제 2 고향'

- 30 여년전 고향 안고 천만리길 달려왔던 요조당·림소란 부부를 추억하여



▲ 리할머니는 요조당 부부가 낳은 아들 연민이를 친손자처럼 귀여워하며 애지중지했다.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히 수립, 세월이 흐를수록 빛나는 민족단결의 미담

요조당, 림소란 부부가 조선족 할머니인 리생금을 상해에 모시고 가서 친어머니 못지 않은 사랑을 주고 또 할머니의 고향함을 안고 천만리길을 달려온 이야기는 어느덧 30 여년전의 옛말로 되었다. 그러나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력사시대적 배경하에서 조한 두 민족 보통 백성들이 엮은 민족단결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결코 때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감동과 울림이 있는 미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월 22일에 소집된 연변조선족자치주 선전사상문화사업회의에서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은 연변의 력사 속에 묻혀있는 요조당, 림소란 부부가 조선족 할머니 리생금을 마지막까지 돌본 감명깊은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훌륭한 민족단결 이야기들을 적극 발굴하고 널리 선전하는 것은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서 매우 현실적인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여 지적했다.

6월 4일, 기자는 여러모로 되는 수소문 끝에 상해에 있는 요조당, 림소란 부부와 전화연락을 가지게 되었다. 올해 이미 74세인 요조당과 76세인 림소란은 이미 정년퇴직했고 아들 연민이는 대학을 졸업한 후 상해시의 발전공장에서 사업하고 있다고 했다. 요조당 부부는 인생의 황혼에 들어섰지만 아직도 여전히 청명이나 추석이 되면 리생금할머니를 추모하면서 몹시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조당은 리생금어머니가 자신이 가장 어렵고 힘들던 시기에 보내준 사랑과 관심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요조당의 '제 2 고향' 연변에 대한 감정은 아직도 식지 않았다. 올해 여름철에 건강상황을 보아가면서 다시 한번 '제 2 고향' 연변의 그림던 지역들을 둘러보고 싶다고 요조당은 말했다. 여러해전에 퇴직한 후 연변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서성촌의 마을 뒤로 장백산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건설된 것을 보았고 연변의 큰 발전과 변화를 느꼈다고 했다. 그는 인생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연변행에 리할머니의 묘소를 찾아 인사도 드리고 몇 남지 않은 연변의 옛 지인들도 만나 옛 추억을 더듬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요조당 부부는 "연변은 아직도 많은 미련이 남아있는 우리의 제 2 고향"이라고 말했다.

1978년 2월 17일 《길림일보》에 <해란강반의 한집사람>이 발표되어서부터 《해방일보》, 《상해청년보》, 《길림청년》, 《중앙인민방송국》, 《연변일보》 등 전국의 많은 신문, 잡지, 방송들에서는 앞다투어 요조당, 림소란 부부가 년로한 조선족 할머니 리생금을 친부모마냥 극진히 받들어모신 사적들을 보도하였다. 인터넷 시대인 지금도 이들의 감동적인 사적들은 온라인상으로 계속해서 전파되면서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기억이 희미해져가도 결코 잊을 수 없고 또 잊어서는 안될 소중한 민족적 우애와 감정, 요조당, 림소란, 리생금 등 평범한 보통사람들이 엮었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민족단결의 감동적인 미담들은 날이 갈수록 더 밝은 빛을 발산하면서 전사회적인 긍정적 에너지들을 전파하고 있다. /인상근기자

안고 서성촌에 도착하기까지 강을 건널 때면 "할머니 강을 건넵니다." 하고 고향함을 일일이 문안인사를 하면서 달려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도착하는 걸음으로 리생금할머니의 고향함을 남편의 옆에 고이 물어주었다. 서성촌에서 살 때 이미 리할머니 남편의 묘자리를 알고 있었던지라 마을에서 삼 한자루 빌려가지고는 직접 산에 올라 고향함을 모신 것이다. 요조당 부부는 리생금할머니에 대한 마지막 효도를 실천하는 것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민족단결의 미담을 엮었다. 당시 이들 부부가 서성촌에 왔을 때 서성진에서는 한창 진운동화가 열리고 있었다. 이들 가족은 운동대회 주석대에 초대되어 상반 대접을 받았고 당시 사람들의 감탄과 흠모의 눈길을 한몸에 받아안았다.



▲ 1979년 상해로 돌아가는 길에 천안문광장에서 남긴 가족사진

"친부모도 아닌 타민족의 년세 많은 로인을 한두해도 아니고 그토록 오래동안 끝까지 모신 것만 해도 대단한데 로인의 생전 유언을 지켜드리기 위해 고향까지 안고 떠나면 상해에서부터 천만리길을 달려왔으니 정말 조련찮고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당시 이들의 사적을 잘 알고 있는 서성진의 촌민들은 너도나도 엄지손가락을 내밀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당시 필자가 이들 부부를 취재해서 쓴 기사 <곶회함 안고 천만리>는 《연변일보》에서 펼쳤던 '세태잡' 기사 응모 콩쿠르에서 최고상인 1등의 영예를 받아안았다. 글을 잘 써서 최고의 수상 영예를 따냈다가보다 상해지식청년 부부의 가특한 소행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놀래웠기에 《연변일보》에서 최고의 상을 주었다고 믿고 싶다.

▶ 1 면에서 상해에 간 후 리할머니는 요조당, 림소란 부부의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대도시 생활을 느껴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상해 대도시의 생활이라 하지만 리생금할머니의 마음만은 그냥 고향마을에 가있었다. 상해로 가서 5년 철을 잡던 해 리할머니는 고향마을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 때문에 연변에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요조당 부부가 아무리 만류해도 소용없었다. 하는 수 없이 요조당 부부는 리할머니를 모시고 다시 연변에 돌아왔다.

그런데 정작 떠날 때가 되어 다시 리별하러니 정이 들 대로 든 이들 부부와 리할머니는 작별인사를 나누기가 힘들었다. 더우기 당시 할머니 품에 안겨서야 잠들곤 했던 아들 연민이가 리할머니의 목을 꼭 끌어안고 할머니가 돌아가지 않으면 자기도 상해로 가지 않겠다고 막무가내로 떼질을 쓰는 통에 리할머니는 다시 이들 부부를 따라 상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20년 세월을 리할머니와 요조당 가족은 한집에서 한가마뱀을 먹으면서 피보다 진한 혈육의 정으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친혈육'이 되었다.

리생금할머니의 고향함을 안고 천만리길

1991년 정월, 리생금할머니는 상해에 온 지 꼬박 13년 철을 잡던 해에 91세 고령으로 세상을 떠났다. 리생금할머니가 이토록 장수하며 요조당의 가족과 천륜지락을 누리게 된 것은 이들 부부와 아들 연민이의 민족과 혈연관계를 초월한 따뜻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깊은 정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리할머니가 세상을 뜬 후 화장한 고향을 날리지 않고 남겨두었다. 다년간 연변에서 생활해왔던 요조당은 조선족 풍속습관에 부부가 사망한 후 한곳에 모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할머니의 고향을 서성촌에 있는 령감의 옆에 묻어주는 것이 할머니를 위한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듬해인 1992년 8월, 요조당 부부는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만사를 제쳐놓은 채 아들 연민이를 앞세우고 리할머니의 고향을 안고 다시 연변을 찾았다. 조선족의 장례 풍속에 따라 요조당 부부는 고향함을

민족어문사업 능력과 서비스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

셋째, 여러가지 조치를 실시하여 언어문자사업의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

중국민족어문번역국 조선어문실 부주임 리봉, 연변대학 문화원 부교수 한은실, 길림성 당위당학교 맑스주의학원 부교수 최홍량, 길림대학 문화원 교수 황옥화가 선후하여 주제 강좌를 진행하였다.

리봉 부주임은 <당정문헌자료번역실천연구>란 주제로 당정문헌자료 전문용어의 번역 원칙을 귀납하고 한은실부교수는 <의역>과 <운역>이란 주제로 조한 번역 리론과 기교를 선보였으며 최홍량부교수는 생동한 당과

선물하였다. 특히 황옥화교수는 <한조 언어대비 및 2종 언어 습득연구>란 주제로 한조 두 언어의 부동한 특징을 대비시켜 두가지 언어의 지식구조를 계통적으로 문술하였다.

중강식에서 길림신문사 오건기자, 룡녕민족출판사 김시문편집, 흑룡강일보신문그룹 조문편집실 류설화기자가 각기 해당 성에서 온 수강생들을 대표하여 학습소감을 발표하고 길림성민위 박문수 처장이 총화발언을 하였다.

한편, 강습반은 동북사범대학 국가민위중화민족공동체식연구기지에서 현장 체험 활동을 가지기도 했다.

/본사기자

우리의 명절과 기념일

단오의 유래와 풍속

- 신기택 -

매년 음력 5월 5일은 단오절이다. 단오절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는 전통 명절의 하나이다. '단'은 '시작', '초기'라는 뜻이고 '오(午)'는 옛날에 '오(五)'와 통했는데 단오는 5월이 시작된 지 5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다. 2006년 5월 20일, 단오절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최초의 국가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고 2008년에는 단오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9월 30일에 유네스코는 우리 나라의 단오절을 '인류무형문화유산대표목록'에 선정하였다.

단오절의 기원은 예로부터 의견이 분분하여 지금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가 있다. 용을 기리는 명절, 애국시인 굴원을 기리는 명절, 춘추시대 진나라의 충신인 개자추를 기리는 명절, 춘추시대 오나라 대장 오자서를 기리는 명절, 화계효녀 조아를 기리는 명절, 악월악일(惡月惡日)에 기원을 둔 기일이라는 설 등이다.

우의 여섯가지 주장에는 일정한 근거들이 있지만 모두 일정한 지역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첫번째와 두번째 설이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국시대가 끝난 후 단오절은 애국시인 굴원을 기리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전국시대 말기에 살았던 굴원은 정치개혁이 귀족대신들의 리익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동정호 일대에 류배된 후 맥라강변에서 명자인 <리소(离騷)>를 썼다.

기원전 278년, 굴원은 자신이 나라를 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음력 5월 5일에 맥라강에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여 해마다 그날이 돌아오면 그의 시신이 자라에게 먹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은 강에 쫄즈(粽子) 같은 음식을 던져넣었다.

위진시대에 이미 단오에 쫄즈를 먹는 풍속이 성행했고 당송시대에는 쫄즈가 유명 식품이 되어 종류가 다양했다. 명청시대에도 쫄즈는 점차 더 다양해져 오늘날 쫄즈는 슈퍼마켓과 민간 시장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되었으며 전통 음식문화는 현대생활에 조화롭게 통합되었다.

단오절이면 남방에서는 지금도 룡주(龍舟)시합을 벌이고 북방에서는 쫄즈를 먹는다. 단오에 북방 사람들은 쫄즈를 먹는 것 외에도 문에 쑥을 걸어두는 풍습이 남아있는데 이는 악월악일의 속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쑥의 특이한 냄새가 방에 들어오는 사악한 기운을 막아 여름을 깨끗하고 평화롭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우리 조선족들은 단오날에 나름대로 명절 활동을 해왔다. 가장 전형적인 풍속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창포김치를 먹으며 창포주를 마시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놀이를 즐겼다. 남성들은 씨름을 즐기고 여성들은 그네뛰기를 즐겼는데 우리의 구전소설(춘향전)에 나오는 선춘향과 리몽룡이 바로 단오날에 만났던 것이다.

겉치레 줄이고 개성 중시하는 젊은 세대 -

'작지만 아름다운' 결혼식, 새로운 추세로

우리 나라 젊은 세대의 결혼식 문화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복건성 출신 녀성 딸리는 게임 디자인 업계에 종사하는데 34세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결혼식 당일 이들 신랑 신부는 직접 사회를 보았고 게임 캐릭터로 분장한 하객들이 등장했다. 이 독특한 결혼식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10분도 채 안돼 마무리되었다.

소형혼례, 려행혼례, 코스프레(역할극) 등... 최근 수년간 중국 젊은 세대들의 결혼식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젊은층의 생활방식에 스며든 새로운 개념을 반영한다.

새벽부터 이어지는 화장, 신부 맞이, 손님 맞이, 식장 입장... 모모는 친구 결혼식에서 둘러리려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전통 결혼식을 마라톤에 비유했다. 그는 "당시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니었는데도 녹조가 됐다."면서 "내 인생이니 편하게 살고 싶고 남에게 많은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일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소형혼례, 3루웨딩 등 주제와 관련한 게시물이 1,000만건 이상 조회됐으며 많은 네티즌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결혼식 과정을 정리해 공유했다. 여기서 '3루란 신부 맞이, 웨딩가, 둘러리려 생각하는 결혼식을 뜻한다. 려행혼례는 결혼식과 려행을 결합한 것으로 인기 명소를 선택해 려행지에서 식을 올리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28세의 소우와 그의 남편은 량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천성 서부의 려화호 관광지를 찾았다. 이들은 월랑호(月亮湖)에서 결혼 서약을 하고 반지를 교환했으며 량가 부모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했다.

소우는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마치 탐험을 하는 것 같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이들은 결혼식 전날에 린근 리관에 도착했으며 40분 동안 산을 오르며 사전 답사를 할 때는 폭우까지 만났었다. 소우는 "불확실한 요소가 많았지만 다행히 결혼식 당일에는 날씨가 좋았다."면서 "돌아보니 참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결혼식은 경제적 압



▲ 한쌍의 신랑 신부가 량가 부모를 모시고 려행혼례를 치르고 있다.

박, 자신만의 경험 중시, 개성 표현 등 요인이 작용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됐다.

"결혼식은 개성 있는 삶을 추구하는 젊은 이들의 표현의 하나입니다." 화중사범대학 사회학리연구센터 주임 매지강의 설명이다.

매주임은 오늘날 빠른 생활 리듬 속에서 젊은층들은 더 빠르고 간소한 결혼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 이들은 자기표현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결혼식에 대한 체험 요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형식이 간소화됐다고 신랑 신부의 정성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친지 및 지인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신이 수공으로 만든 결혼식 소품을 활용해 전통 식순을 벗어난 결혼식을 기획하는 예비부부들도 있다.

매주임은 "사회적 기능의 관점에서 볼 때 예전에는 친지들에게 결혼 사실을 알리기 위해 결혼식을 했다면 현재는 결혼식을 통해 정서적 거리를 얻고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지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작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이 새로운 추세가 됐다고 덧붙였다. /신화넷

2024년 민족어문번역사업 업무공간 강습반 장춘서

동북 3성조선어문번역사업소소조관공실에서 주최한 2024년 민족어문번역사업 업무공간 강습반이 일전에 장춘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강습반에는 동북 3성의 언론, 출판, 교육, 문화계 번역사업일군 50여명이 참석하였다.

개강식에서 길림성민위 부주임 장성은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구축하고 새시대당의 민족사업의 내적 요구를 심각하게 파악하여 민족어문사업 능력과 서비스 수준을 진일보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강습반을 조직했다."고 강조하고 세가지 요구를 제출하였다.

첫째, 정치의식을 강화하여 새시대 어문사업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어문분야연구를 심화하여 민족지구